

광양시 고령 임신부 65% 의료비 지원

‘의료비 플러스 사업’ 1년 평가
본인부담금 50만원 지원 정착
조기 진단 기회 늘리는데 도움

광양의 고령 임신부 3명 중 2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광양시가 출산 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광양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에 등록된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 48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 임부 또는 기형아 검사 유소견이 있는 35세 미만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와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최대 50만원까지 1회 지원하는 광양시의 자체 정책이다.

이번 조사에서 고령 임신부 488명 중 316명이 의료비를 지원 받아 수혜율 64.8%를 기록함으로써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폭넓게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특히 청구 기한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출산 전이거나 신청 준비 중인 대상자까지 포함해 향후 수혜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광양시 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 후, 진료비 기제가 가능한 전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쿠폰을 지참해 관내 지정 산부인과(류여성의원, 미래여성의원)를 방문, 진료와 검사를 받은 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밀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접종비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며, 국민행복카드나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된다.

황영숙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 임부가 꼭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태아가부터 건강한 출산을 돕는 기초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 진단 기회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의 첫 단계인 ‘태아기 지원’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앞으로도 임신 초기부터 안정적인 출산까지,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시책을 지속 추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32)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관계자가 지역 농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폭염 대응 현장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 선제 조치

고흥군이 관내 농어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업·어업 등 주요 근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검 점검 사항으로는 ▲폭염 경보 시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 야외작업 자제 여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휴식 공간 확보 여부 ▲시원한 식수와 냉방 장비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 ▲고용주의 폭염 대응 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이

현장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고흥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기후 위험 요인에 대비한 맞춤형 근로자 보호 정책과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폭염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원이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폭염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457개 농어가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1916명이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어업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망 가동

기상 상황따라 ‘비상 3단계’ 대응
재난취약지역 76곳 등 집중관리

여수시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한파 등 사계절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 체계를 가동 중이다.

먼저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신속하게 운영하며, 13개 협업 기능별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단계별로 재난 상황관리,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시설 응급 복구 등 실무반을 편성해 신속한 피해 예방과 복구에 나서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취약 지역 76곳과 급경사지 215곳, 반지하주택 21곳, 배수펌프장 9곳 등을 상시적으로 집중 점검, 관리 중이다.

5월부터 9월까지의 폭염 대응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대응 체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심 전역에 무더위쉼터 437곳과 그늘막 204곳, 스마트 승강장 5곳, 쿨링포그 4곳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며, 특히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들을 중심으로 3대의 도로 살수차를 하루 4회 집중 운영하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5개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를 통해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 중이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보호를 위한 구호체계도 가동 중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일시 대피하거나 주거지를 상실한 시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105개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를 즉시 지원하고 임시 숙소 제공과 장기구호비 지원으로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취약지역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을 추진,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나무은행, 도시녹화·도시경관 개선 기여

상반기 도심 곳곳 134주 이식
도시환경 관리 핵심 수단 활용

순천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공공녹지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134주의 수목을 이식·활용하고, 10주의 기증 수목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순환경형 산림자원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시는 조례동, 왕지동, 낙안면 소재지에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2.6헥타르(2만6000㎡)의 면적에 교목(큰 나무) 1687주 및 관목(작은 나무) 1880주 등 총 3567주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나무은행 수목을 국가정원, 오프그린광장, 죽도봉 일원 등에 분산 식재했다. 특히 시민들이 기증한 느티나무와 당종려 나무 등은 국가정원과 왕지어린이공원 등에 이식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시는 정원박람회 이후에도 나무은행을 도시환경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



순천시가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은 당종려나무를 순천만국가정원에 이식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으며, 주기적인 제초, 관수, 시비 작업을 통해 수목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무은행은 굴취되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순천시에서는 2008년에 설립해 수목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환경개선 등 녹색경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도시정원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순환의 중심축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순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제암산휴양림·환경성질환센터 재개장

대대적 리모델링 쾌적한 환경 조성

보성군의 대표 산림휴양지인 ‘제암산자연휴양림’과 환경성질환 치유 특화시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추진된 이번 리모델링은 숙박·치유·체험 기능을 강화하며 웰니스 관광지로서 보성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리모델링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꽃향기의 집(진달래 2동, 영산홍 3동)’과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내 ‘원기 회복의 집(5동 8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성군 융치면에 자리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편백숲과 맑은 계곡, 야영장과 산책로를 갖춘 산림휴양지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보성의 핵심 관광명소다. 총 26동 47실, 야영데크 50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와 단체 방문객에

게 모두 적합한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어들었다.

‘꽃향기의 집’은 숙소 내외부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지난 25일 재개장했다. 냉난방 설비부터 조명 등 주요 시설이 최신 사양으로 교체됐으며 외관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박 환경이 조성됐다.

앞서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역시 시설 개선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이 센터는 지구온난화, 산업화, 식생활 변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른 환경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전문 기관으로 황토·맥반석 찜질방, 산소방, 녹차탕, 치유명상실, 야외 족욕 시설 등 다양한 치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다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다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